

전남도-국회의원 당선인, 지역 현안 해결 힘 모은다

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이개호·권향엽·김문수 국회의원 등 참석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25개 사업 국비 확보 등 공동대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전남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주력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개호·서삼석·김원이·주철현 국회의원,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 당선자가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날 15개 정책을 건의하고 25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31건의 지역구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은 15개 정책 건의사항 중 첫 번째로,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여기에 ▲전남 국립의대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출생수당 신설·국가이양사무(전환사업) 재원 영구보전·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경제 개선 ▲지역 실정에

맞는 해상풍력법 신설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호남권 미래 SOC 조기 확충을 위한 고흥-광주 간 우주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전남형 트랩 구축 등 ▲글로벌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농·수협 등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해 전남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 "인근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 TK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내년 공항 내 KTX 역사 건립을 계기로 무안국제공항이 성장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전남도는 또 국비 지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25개 현안 사업으로 ▲국립 김 산업진흥원 및 물류단지(국비 700억)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국비 64억) ▲K 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국비 462억) ▲미래에너지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국비 230억) ▲담양 보리암 명상센터 건립(국비 57억) ▲곡성 석곡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IC-검면 간 국도 27호선 개량공사(국비 1546억)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국비 450억)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국비 870억) ▲장흥 국립호국원 건설(국비 497억) ▲해남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국비 450억) ▲영암 국립바독연수원 유지(국비 450억) 등을 올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아울러 31개 지역구 현안 사업으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여수엑스포역 전남 최초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용역 추진 ▲백두대간권역 명품경관 조성사업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장성 잔디연구소 설립 ▲고흥우주선 철도 건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구축 ▲장산-신의연도교 건설 등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당선자들도 전남도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공동육아' 확산...광주시와 엄마들이 뭉쳤다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서 정책소품...육아품앗이 등 논의

이웃과 육아공동체를 만들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광주시와 '마을엄마'들이 뭉쳤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여성친화마을인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 정책소품을 열고 시민 주도 특색돌봄 실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공동육아 문화 확산 등을 중점 논의했다.

강 시장은 지난 3월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찾아 육아현장을 살피고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지각장려금) 확대 방안을 주문한 데 이어 육아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정책소품에는 강 시장을 비롯한 유길원 꿈나무 사회복지관장과 공동육아 주민 소모임인 '함께 돌봄 마을엄마' 이동애·방울·정정희씨 등이 참석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여성친화마을로 선정된 꿈나무 사회복지관은 14명의 '마을엄마'들이 자발적으로 동네 임시 자녀돌봄방을 운영하며 이웃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있다. 또 아빠와 함께하는 '맘처럼 돌봄프로젝트' 등을 통해 남성 참여 공동육아 문화

확산과 지역주민의 돌봄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함께 돌봄 마을엄마"들은 서로 육아를 돕고, 고민을 나누며 돌봄공동체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여성친화마을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정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2012년부터 여성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 단위 돌봄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총 79개의 여성친화마을을 발굴·지원했고, 지난해는 광주시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육아품앗이 '삼삼오오 이웃돌봄사업'과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확대 운영'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그린카진흥원

7대 신임 원장 공모
23일까지 접수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오는 23일까지 제7대 신임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기업, 대학, 연구소, 지자체의 자동차 산업 등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찾는다. 지난해 이뤄진 두차례 공모에서 적격자가 없어 김덕모 원장이 오는 11월 1일까지 1년 연임하기로 했으나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그린카진흥원은 전했다.

원장은 광주시의회 인사 청문 대상으로 임원 채용 관련법의 결격 사유나 병역기피, 탈세,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등이 없어야 한다. 임기는 2년이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다.

공모모집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시의회 인사청문회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오는 7월 초에 신임 원장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카진흥원은 광주시 미래 차 산업 육성, 기업 지원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책향기 가득 '도서관 문화마당' 개최

광주시립도서관·시교육청, 시청 앞 광장·전일빌딩245서 10~11일

광주시립도서관과 광주시교육청은 "10~11일 전일빌딩245와 시청 앞 광장에서 광주대표 도서출판 '도서관 문화마당'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책향기를 통해 값진 깨달음을 얻어 가자는 '갑진독서(甲辰讀書)'를 주제로 지역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점자도서관, 독서단체 등 46개 기관이 함께 한다.

사전행사로 10일 오후 7시 전일빌딩245에서 버스커 박준현의 공연과 영화 '데드풀', '스파이더맨', '보헤미안 랍소디' 등을 번영한 황석희 번역가가 강사로 나와 '일상을 번역한다는 것'을 주제로 강연한다.

본 행사는 시청 앞 광장에서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자기 책갈피 만들기 등 31개의 독서문화 체험부스를 비롯한 트램펄린, 대형 윙클링 등으로 구성된 독서놀이터를 운영한다.

도심 속 책 읽기와 휴식을 위한 공간인 독서쉼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 놀거리, 쉴거리로 잔디광장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어린이책 작가와 만남의 시간도 갖는다. '문어 목욕탕', '코끼리 미용실'의 저자 최민지 그림책 작가는 11일 오후 1시 '독자 되기와 작가 되기'를 주제로 어린이들을 만난다. 오후 3시에는 '드라팔라 치료', '프랑켄 수선집'의 윤담요 동화작가가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이야기 씨앗이 그림책이 되기까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세련된 내용은 광주시 대표도서관 누리집(<https://lib.gwangj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온 가족이 도심 속 봄나들이로 책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여유로운 쉼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안전한 금융!

조합원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

- SJ 숯사랑예금 4.1%
- SJ 숯사랑적금 4.5%

자유로운 입출금! 높은금리!

고금리수시입출금 1.6%

마이뉴스통장개설 환영

입출금통장 이용시 수수료 "0"원

농자·주책·광장·상가·임아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SJ 나주저리조합 Tel. 061) 334-2154
전남 나주시 송월3길 28 Fax. 061) 332-2154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풀칼라 최고화질

-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창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와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